



어려운 판결문, 쉽게 풀어 읽기

대한민국 법원은 판결문의 어려운 표현들을 순화하고 올바른 표현을 쓰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판결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어려운 표현, 일본어투 표현 등을 쉽게 풀어 함께 읽어볼 수 있는 카드 뉴스를 시리즈로 준비했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‘가사(假使)’, ‘금원(金員)’, ‘불상경(不詳頃)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1. 가사(假使)

가령, 설사, 설령

| 판결문 예시 |

가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...

| 쉽게 읽기 |

가령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...

2. 금원(金員)

금액, 돈

| 판결문 예시 |

피고가 원고들에게 **금원** 합계 42,500,000원을 추가 간접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...

| 쉽게 읽기 |

피고가 원고들에게 **금액** 합계 42,500,000원을 추가 간접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...

3. 불상경(不詳頃)

정확히 알지 못하는,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

| 판결문 예시 |

피고인은 2019년 **불상경** 의정부시 **로 **에 있는 화장실에서 소형 카메라를 부착하고...

| 쉽게 읽기 |

피고인은 2019년 **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** 의정부시 **로 **에 있는 화장실에서 소형 카메라를 부착하고...